

# 이솜 “90년대 유행 갈매기 눈썹 위해 눈썹도 뽑았죠”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오는 21일 개봉

할 말 하는 돌직구 ‘정유나’ 역할 맡아

“헤어·메이크업·의상 신경 많이 써”

“새로운 캐릭터 꾸준히 도전할 것”

“90년대 시대 배경이 흥미로웠어요. 세 친구가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케미가 좋아서 재미있는 영화가 나왔어요.”

배우 이솜이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에서 1995년 고졸 말단 사원으로 당시 유행 스타일을 완벽 재현했다.

그는 추리소설 마니아로 빼 때리는 멘트의 달인인 마케팅부 ‘정유나’ 역을 맡았다.

이솜은 15일 서울 종로구 삼정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처음 영화 제목을 보고 독특함에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작품 출연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연출을 맡은 이종필 감독과의 인연 때문이다. 영화 ‘푸른 소금’에 배우로 같이 출연을 했었다.

이솜은 “유나” 캐릭터를 쓸 때 저를 생각하며 썼다고 해 시나리오를 긍정적으로 보게 됐다”며 “고아성, 박혜수 배우와 함께한다고 해서 설됐다. 오랜만에 정말 재미있는 영화로 관객들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자신했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1995년 입사 8년 차, 업무능력은 베테랑이지만 고졸이라 늘 말단으로 회사 토익반을 같이 듣는 세 친구가 힘을 합쳐 회사가 저지를 버리를 파헤치는 이야기다.

토익 600점을 넘으면 대리로 승진해 진짜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잠시, 회사의 폐수

무단방류 사건을 파헤친다.

극 중 돌직구로 당당한 성격의 ‘유나’로 분한 이솜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 이면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을 많이 챙기는 친구이며 강한 척, 아는 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속에 인정욕을 넣었더니 친근해지고 사람다워지더라”라며 “유나”의 정서적인 면을 많이 고민했는데, 영화에 많이 담기지지는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이솜은 여러 작품에서 당당하고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를 선보여왔다. 그래서 비슷한 성격의 ‘유나’ 캐릭터를 제안받고, 처음엔 고민도 했다고 밝혔다.

“다른 결의 여성 캐릭터를 연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처음 제안받았을 때 고민했어요. 하지만 영화를 찍고 나니 제가 안했으면 재미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대적인 느낌을 집요하게 파고든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유나”처럼 할 말을 다 하는 돌직구 스타일은 아니라고 했다. 이솜은 “유나만큼 아는 것도 없고, 아는 척도 못 한다”며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래도 할 말은 하는 편이라고 하더라. 저는 생각보다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라며 웃었다.

“대신 ‘유나’처럼 우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같이 나서줄 수 있죠. 반면에 말이 많지는 않아요. 강한 척하는 것도 저와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특히 이솜은 영화 속에서 90년대 유행한 갈매기 눈썹에 블루 블랙 헤어, 화려한 의상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헤어부터 메이크업, 의상 모두 스타프들과 함께 의논하고 회의하며 완성했다. 의상 준비를 위해 동묘 시장에도 처음 방문했는데 시선을 끄는 예쁘고 귀한 옷들에 즐거웠다고 떠올렸다.

이솜은 “세 친구 중에서 90년대를 가장 잘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잡지나 영상,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다. 외적으로 신경을 정말 많이 썼고 너무 만족스럽다”고 크게 웃었다.

“90년대 화장기법이 갈매기 눈썹이었는데, 실제로 (눈썹을) 뽑았고 눈썹뼈 부분은 살려서 윤곽을 돋보이게 했어요. 당시 블루블랙 헤어가 유행이었다고 들어서 꼭 하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블루블랙은 물이 잘 빠져서 촬영하는 동안 서너 번 정도 물들었어요.”

당시 시대를 재현하는데 엄마의 사진도 한 몫했다. 촬영하는 내내 이솜의 휴대전화 배경은 1995년도 엄마의 사진이었다.

“엄마는 몰라요. 제가 살가운 딸은 아니라 부끄러워서 말 못 했죠. 당시 엄마 앨범을 봤는데 멋쟁이셨어요. 가족 재킷에 목걸이와 큰 액세서리가 정말 멋있었죠. 저의 흐릿한 90년대 기억을 담고자 했고, ‘유나’에게 엄마를 담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90년대생 또래들이 모여 촬영한 만큼, 케미가 좋은 영화라고 자신했다. 노래를 즐겨듣고 부르는 고아성과 박혜수 옆에서 자신은 박수



를 열심히 쳤다며 웃었다.

“또래 여배우들과 촬영한 건 처음이에요.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 현장에서는 촬영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어요. 촬영이 끝난 후 두 사람이 보고 싶더라고요. 자연스레 방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호흡을 맞춘 두 배우에 대해 사랑스럽다고 표현했다. “아씨는 전부터 같이 작업해보고 싶었어요. 촬영 전에는 굉장히 어렵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촬영하며 보니 사랑스러운 친구였죠. 해수씨는 ‘스윙키즈’에서 인상 깊게 봤어요. 연기도 잘하고 촬영하면서 어른스러운 면도 느껴졌어요. 현장에서 의지가 많이 됐고, 보면 기분이 좋아서 많이 찾았죠.”

세 배우는 최근 영화 개봉을 앞두고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녹화도 마쳤다. 이솜은 “저는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씩씩하게 부른다. 자신감 있게 부르는 모습을 발견했다. 90년대 노래로 직접 선택했다”며 “해수씨가 노래를 잘해서 마음이 편했다. 아씨도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정말 잘한다”고 말했다.

이솜은 앞으로 배우로서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캐릭터들에 꾸준히 도전하고 싶다고 했다. 장르적으로는 액션도 궁극하고 가을을 맞아 멜로도 하고 싶다고 했다.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유나’와 정반대 성격의 인물도 연기해보고 싶고, 안 해본 캐릭터 위주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매 작품 잘하고 싶은 만큼, 스스로 더 공부하고 배우로서 노력을 많이 해야죠. 배우로서는 오래 연기를 하고 싶어요.”

## 블랙핑크 ‘킬 디스 러브’ 안무영상도 3억뷰 돌파

약 1년 6개월 만

그룹 ‘블랙핑크(BLACKPINK)’의 유튜브 역대뷰 쾌속 질주가 뮤직비디오뿐만 아닌 안무 영상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5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안무 영상은 전날 오후 10시 8분께 유튜브에서 조회수 3억회를 돌파했다.

지난해 4월 9일 공개된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블랙핑크 안무 영상 중 ‘뚜두뚜두(DDU-DU DDU-DU)’와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에 이은 세 번째 3억뷰다.

최근 10억뷰 대기록을 달성한 ‘킬 디스 러브’ 뮤직비디오의 상승세도 대단하지만, 안무 영상까지 계속 되는 역대급 행진에 대해 업계는 더 놀라다는 반응이다.

‘킬 디스 러브’는 장총을 쓰는 듯한 동작 등 중독성 있는 포인트 안무가 인상적이다.

이 노래는 음원 발매 첫 주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100과 빌보드200에서 각각 41위와 24위에 오르며 당시 K팝 걸그룹 최고 순위를 갈아치웠다.

또한 미국 아이튠즈 송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K팝 걸그룹 최초였으며, 전 세계 여성 그룹을 통틀어 15년 만의 기록이라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총 22편의 역대급 영상을 보유한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올해 들어 더욱 무서운 기세로 늘고 있다.

블랙핑크의 첫 정규앨범 선공개 타이틀 ‘하우 유 라이크 댓’ 발표 때 3740만여 명(2020년 6월 26일 기준)이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현재 5100만명을 돌파, 전 세계 아티스트 1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

한편 블랙핑크는 ‘디 앨범’으로 각종 글로벌 차트를 휩쓸고 있다. ‘디 앨범’은 지난 2일 음원 발매 직후 세계 57개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다.



## 개리, 새 미니앨범 ‘2020’ 발매

1년2개월만에 컴백

래퍼 개리가 새 앨범으로 돌아왔다. 개리는 15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새 미니앨범 ‘2020’을 발매한다.

이번 앨범은 지난해 8월 발매한 싱글 ‘퍼플 비키니(Purple Bikini)’ 이후 1년2개월 만에 발표하는 신보다. 총 4개 트랙이 수록돼 있다. 타이틀곡 ‘외곽순환도로는 개리가 프로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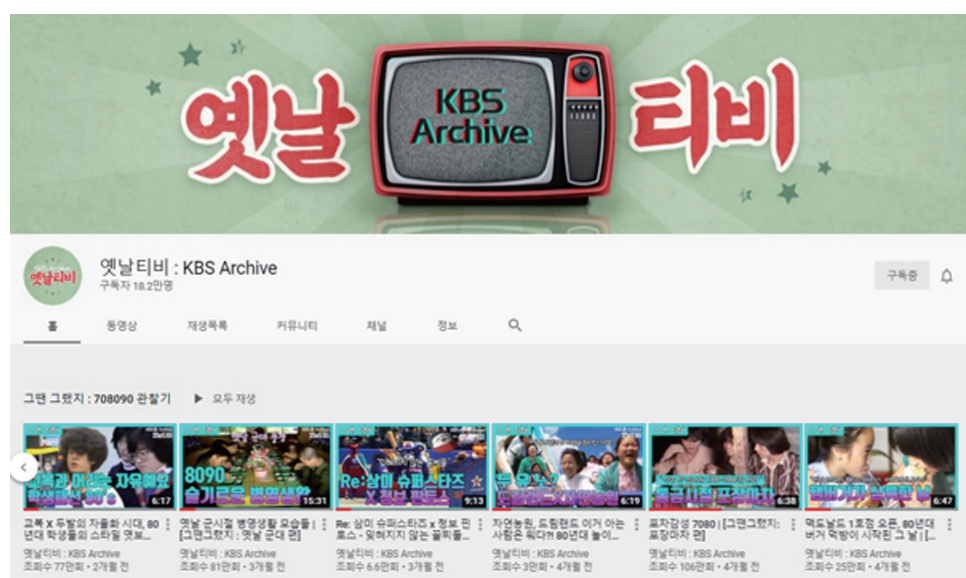
이자 DJ로 활동 중인 스프레이, 엘라이크와 함께 만든 트랙이다.

“사진은 개리가 오랜만에 가수 정인과 함께 부른 곡으로, 부묘가 된 두 뮤지션의 현재의 심정을 담았다.

소속사 측은 “개리가 그동안 육아 때문에 앨범을 자주 발매하지 못했지만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 앞으로 꾸준히 음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KBS·MBC 유튜브 광고 이익 100억 넘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서 새로운 플랫폼 활용 신규 수익원 창출에 적극적 대응 필요”



KBS와 MBC가 유튜브를 통해 얻은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흥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들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8년 48억원의 유튜브 광고 이익을 얻은 KBS는 2019년에는 두배에 가까운 8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75억원의 수익을 내 연말에는 100억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MBC는 2019년에 이미 100억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KBS는 현재 107개 채널에 68만여개의 동영상 업로드해 총 누적조회수 292억회를 기록하고 있다.

MBC는 38개 채널에 37만여개의 동영상을 업로드, 총 누적조회수는 340억회다.

흥정민 의원은 “KBS, MBC 모두 광고매출 급락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한 수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한 신규 수익원 창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티켓 예매 시작

상영작 1편당 1인 1장 예매 가능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영화제 티켓 예매가 15일 오후 2시부터 30일까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티켓 예매는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기존 종이 티켓 대신 모바일 티켓으로만 발급 가능하다.

상영작 1편당 1인 1장 예매할 수 있으며, 티켓 교환 및 양도는 불가하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관객의 안전한 티켓 예매를 위해 현장 매표소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영화제 측은 전했다.

티켓 예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21~30일 열린다.

상영작은 68개국 총 192편이며, 영화의 전당 내 5개관에서 상영된다.

## 지수, 키이스트 전속 계약... 주지훈과 한솔밥

배우 지수가 키이스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키이스트 매니지먼트 부문대표 이연우 이사는 “지수는 순수한 매력과 강인함이 공존하는 마스크와 함께 한계없는 다양한 캐릭터 소화력으로 주목 받아 왔다”며 “20대를 대표하는 청춘 배우 지수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2015년 드라마 ‘앵그리맘’으로 데뷔한 지수는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힘센여자 도봉순’ 나쁜녀석들: 악의 도시’ ‘탁구공’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등 드라마와 ‘글로리아데이’ 등 영화에도 출연했다. 종방을 앞둔 MBC TV 수목드라마 ‘내가 가장 예뻤을 때’에서 순정 연하남을 연기했다.

2017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AAA)’에서 ‘2017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라이징스타



상도 받았다.